口訣字의 코드체계 定立을 위한 試論

이 건 식*

Ⅰ. 序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입출력을 위한 口訣字의 효율적인 코드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작업은 口訣資料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컴퓨터는 정보처리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므로 컴퓨터로 口訣資料를 처리하는 것은 口訣資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口訣字의 코드체계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검토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口訣字의 讀音 추정에 학자마다 이설이 있고 새로운 口訣資料가 계속해서 소개되어 새로운 口訣字가 나타나는 실정을 감안할 때 口訣字의 이상적인 코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획득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코드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은 1992년 문서작성기 <훈글> 2.0.에 채택된 244자의 口訣字 코드체계가 구결연구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훈글> 2.0.에 채택된 244자의 口訣字 코드체계가 이상적인 체계가 아니고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이 코드체계가 <훈글> 2.0.에 채택되어서 연구자들이 口訣資料를 쉽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口訣字의 표시에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이 口訣에 관한 硏究論文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훈글> 2.0.의 244자 口訣字 코드체계는 1992년에 <구결연구회>와 <훈글과 컴퓨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코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 코드체계의 제정경위, 제정원칙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 코드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1992년 이후에 새로운 口訣資料가 소개되어 새로운 口訣字가 출현하였으므로 이 口訣字를 포함하여 새로운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까지 알려진 口訣字를 토대로 최선의 코드체계를 확립하는 원칙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Ⅱ. 本 論

1. 〈훈글〉 2.0.의 244자 口訣字 코드체계

1) 제정경위

<훈글> 2.0.의 244자 口訣字 코드체계는 <구결연구회>가 244자의 口訣字 目錄과 그 表音을 정하여 口訣字에 대한 폰트(font)를 만들고, <한글과 컴퓨터>가 문서작성기 <훈글> 2.0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1].

244자의 口訣字 코드체계를 확정하기까지 口訣字 코드체계의 확정을 위한 논의가 <구결연구회> 내에서 여러 번 있었다. 논의일정과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92년 5월 남풍현 교수의 주관 하에 구결연구회 총무간사 이건식이 정리를 맡아[2] 컴퓨터에서 입출력할 수 있는 口訣字의 目錄과 表音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은 <한국어전산학회>의 <옛글자한글> V.1.2.에 들어 있는 口訣字, 남풍현(1990)에서 정리된 口訣字, 안병희(1979)에서 정리

1) 구결자의 입출력은 <훈글> 2.0.부터 실현되어 2.1., 2.5., 윈도우즈용 3.0. 등의 수정판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구결자를 완벽하게 입출력할 수 있는 문서작성기는 오직 <훈글>뿐이다.

2) <훈글>2.0 244 구결자 코드체계가 갖고 있는 결함들은 모두 이건식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된 口訣字, 이승재 교수와 김두찬 교수가 조사·정리한 口訣字를 바탕으로 정리되고 종합화된 것이었다.

② <구결연구회> 92년 5월 강독회에서 시안에 대하여 1차 논의를 하여 수정과 보충을 하였다. 이 논의에는 남풍현 교수, 심재기 교수, 김두찬 교수, 이승재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 논의에서 口訣字에 대한 변이형의 개념규정과 그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되었다.

③ <구결연구회> 6월 강독회에서 시안에 대하여 2차 논의를 가졌다. 여기에서 시안을 다시 수정, 보충하여 총 244자의 口訣字 目錄과 그 表音을 정하였다. 2차 논의에 남풍현 교수, 심재기 교수, 김두찬 교수, 이승재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④ 1992년 7월에 단국대 국문과 대학원생 김재훈에게 의뢰하여 244자의 口訣字에 대한 화면용 폰트 16*16 자형과 도트 프린터용 폰트 24*24 자형, 레이저 프린터용 40*40 자형과 48*48 자형을 그리도록 하였다. 漢字의 行書를 기본으로 口訣字의 자형을 만들되 표준 크기의 70%의 크기로 口訣字의 자형을 그렸다. 예를 들면 16*16의 口訣字形은 실제로 11*14의 크기로 그렸다. 이는 漢字와 口訣字를 용이하게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다.

⑤ <한글과 컴퓨터>는 244자의 口訣字에 대하여 '1D00'에서 '1DF3'까지 문자번호를 부여하고 예비영역으로 12자의 문자영역을 남겨놓아 <훈글> 2.0. 전문가용에서 이 口訣字를 입출력할 수 있게 하였다.

244자의 口訣字 목록을 그 表音, 문자번호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 (1)과 같다. 아래 (1)의 口訣字 중 첫번째 口訣字 'ㅅ'는 문자번호로 '1D00'이며 마지막 口訣字 '十'는 문자번호로 '1DF3'이다.

(1)

1D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0	ㅅ(ㄱ)カ(가)ガ(가)加(가)可(가)去(거)去(거)巨(거)令(게)ナ(겨)ロ(고)古(고)昆(곤)尒(곰)尒(곰)ミ(과)
1	人(과)ハ(과)ホ(과)戈(과)ヨ(과)果(과)官(관)己(긔)ハ(기)ㄱ(ㄴ)ㅍ(ㄴ)隨(ㄴ)乃(나)尹(나)尹(나)那(나)
2	女(녀)又(노)奴(노)ト(누)ヒ(니)尼(니)ヒ(ㄴ)ヒ(놀)斤(놀)ㅣ(다)タ(다)多(다)如(다)ナ(대)大(대)カ(더)
3	加(더)ヲ(뎌)氐(뎌)底(뎌)丁(뎡)岁(뎨)田(뎬)刀(도)都(도)巴(도)斗(두)斗(두)豆(두)入(들)土(디)地(디)
4	矢(디)知(디)支(디)陳(딘)の(ᄃᆞ)ホ(ᄃᆞ)月(ᄃᆞ)爭(ᄃᆞᆫ)の(ᄃᆞᆯ)ホ(ᄃᆞᆯ)月(ᄃᆞᆯ)冬(ᄃᆞᆯ)ム(ᄃᆡ)矣(ᄃᆡ)ヤ(ᄃᆡ)代(ᄃᆡ)
5	し(ㄹ)乙(ㄹ)尸(ㄹ)・(라)ㅅ(라)四(라)咯(라)羅(라)難(란)汝(러)鄛(러)驢(러)要(려)呂(려)灬(로)灬(로)
6	灬(로)以(로)泉(록)論(론)了(료)刂(리)チ(리)チ(리)ネ(리)利(리)今(리)ヨ(리)里(리)吝(린)ホ(ㅁ)音(ㅁ)
7	ㄴ(마)ヤ(마)广(마)瓜(마)麻(마)磨(마)万(만)萬(만)賣(매)ガ(며)久(며)尒(며)旀(며)弥(며)彌(며)ナ(면)
8	面(면)毛(모)勿(믈)ン(미)米(미)未(미)ユ(ㅂ)巴(ㅂ)邑(ㅂ)火(블)七(人)叱(人)ミ(사)沙(사)ヘ(샤)全(샤)
9	舍(샤)一(셔)西(셔)ヨ(셔)ホ(셔)立(셔)尸(소)所(소)小(쇼)ヽ(시)是(시)ニ(시)示(시)寸(시)时(시)時(시)
A	氏(시)申(신)土(ᄉᆞ)ㅠ(ᄉᆞ)白(숨)生(싱)旧(ᄋᆞ)兒(ᄋᆞ)兒(ᄋᆞ)ミ(아)ド(아)良(아)ア(아)阿(아)牙(아)广(애)
B	厓(애)つ(야)也(야)方(어)オ(어)今(어)ミ(언)言(언)蘇(얼)ユ(여)ハ(여)尒(여)余(여)ヨ(여)曳(예)ナ(오)
C	午(오)五(오)ろ(오)玉(옥)ノ(온)ㅋ(온)乎(온)盈(온)溫(온)ト(와)臥(와)西(요)要(요)于(우)广(응)膺(응)
D	ラ(의)衣(의)ム(의)矣(의)ヽ(이)是(이)刂(이)已(이)伊(이)ヤ(익)引(인)印(인)刃(인)上(자)其(져)齋(져)
E	齋(져)之(지)子(ᄌᆞ)他(타)土(토)吐(토)下(하)何(하)ノ(호)ㅋ(호)乎(호)尸(호)戶(호)忽(홀)ヲ(히)屎(히)
F	ン(ᄒᆞ)為(ᄒᆞ)爲(ᄒᆞ)十(히)☒( )☒( )☒( )☒( )☒( )☒( )☒( )☒( )☒( )☒( )☒( )☒( )

2) 제정원칙

위의 (1)에 제시된 244자 口訣字의 목록과 자형, 표음, 배열순서의 확정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적용되었다. 이 원칙의 정립에는 남풍현(1990)에서 밝혀진 口訣字의 특성들이 참조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省劃의 口訣字와 全字[3]의 口訣字를 모두 목록에 등재하기로 하였다. 문서작성기에 제공되는 글자 축소기능을 이용하여 全字의 口訣字를 漢字로 입력할 수 있는 까닭에 全字의 口訣字를 목록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全字의 口訣字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축소된 漢字가 口訣字인지 아니면 漢字인지를 컴퓨터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별을 위

3) 省劃의 口訣字, 全字의 口訣字를 종래에는 略體 口訣字, 正諧體 口訣字 등의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略體의 '體'가 字形이 아니라 字體를 지칭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口訣字의 字形上의 특질을 중시하여 漢字 原字를 省劃하여 만든 것을 省劃의 口訣字, 漢字 原字의 字形을 변형없이 그대로 모두 이용한 것을 全字의 口訣字로 규정한다. 홍윤표(1985)에 따르면 문헌에 '省劃吐'란 용어가 보인다.

해서 어떤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료의 입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었다.

② 省劃의 口訣字들 간에 字形이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하지만 漢字 原字가 다르거나 또는 字形의 형성방식이 다르면 이들 각각을 별도로 목록에 등재하였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 (2)와 같다.

(2) 字形이 같으나 漢字 原字가 다른 省劃字

漢字 原字	省劃字	表 音	口訣字 形成 方式
在	ナ	겨	訓讀, 省劃
大	ナ	대	音假, 省劃
果	木	과	音假, 省劃
等	木	돌	音假, 省劃
羅	罒	라	音假, 省劃
四	罒	수	音假, 省劃
所	戶	소	音假, 省劃
戶	戶	호	音假, 全字

③ 省劃의 口訣字들 간에 字形이 동일하고 漢字 原字가 같으나 子音의 形成方式이 달라 表音이 달라지면 이들 각각을 별도로 목록에 등재하였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 (3)과 같다.

(3) 漢字 原字가 같으나 表音의 方式이 다른 경우

漢字 原字	省劃字	表 音	口訣字 形成 方式
是	丶	시	音假, 省劃
是	丶	이	訓讀, 省劃
乎	丿	오	音假, 省劃
乎	丿	호	訓讀, 省劃
乎	勹	오	音假, 省劃
乎	勹	호	訓讀, 省劃

④ 省劃字들 간에 漢字 原字가 같고 字形의 형성방식과 字音의 형성방식이 동일하나 개인적인 필기습관에 따른 書體上의 차이만 있을 경우 하나의 口訣字로 통합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필기습관에 의해 기인되는 口訣字의 형태상 차이는 변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예컨대 국어의 형태소 '-ㅅ'을 표기하는 口訣字로 'ᄉᆞ'와 'ᄉᆞ'가 보이는데 이 두 口訣字는 그 표음, 省劃된 부분, 省劃된 방식 등이 동일하여 'ᄉᆞ'와 'ᄉᆞ'가 보여주는 자형상의 차이는 변별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ᄭᅩ'와 'ᄭᅩᆞ'는 漢字 原字, 表音, 省劃된 부분, 省劃된 방식이 같으나 'ᄭᅩ'와 'ᄭᅩᆞ'간에는 그 자형상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져 'ᄭᅩᆞ'가 한자 '彌'에서 省劃된 것이 아니라 'ᄭᅩ'에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ᄭᅩ'와 'ᄭᅩᆞ'를 별개의 코드로 처리하였다. 개인적인 필기습관에 기인하는 자형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로 입력된 口訣資料에 대해 '검색작업'이나 '소트작업'에 편리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ᄉᆞ'와 'ᄉᆞ'를 모두 口訣字의 목록에 등재하였을 경우 입력된 口訣資料에서 국어의 형태소 '-ㅅ'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검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⑤ 모음조화 규칙에 따른 모음 차이는 배제하고 그 표음을 정하였다.

⑥ 口訣字의 배열순서는 첫째 字音의 한글 자모순서에 따라 口訣字를 배열하되 'ㆍ'와 'ㅣ'는 모음의 맨 뒤에 배열하였고 둘째 동일한 字音 내의 순서는 字形의 획수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배열하였다. 단, 같은 한자에서 나온 省劃의 口訣字와 全字의 口訣字는 연속으로 배열하였다.

3) 문제점

<훈글> 2.0.의 244자 口訣字 코드체계가 채택된 이후 이 코드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구결연구회 회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4] 아래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필자가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

4) 특히 김두찬 교수님의 지적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謝意를 표한다.

① <훈글> 2.0.의 口訣字 코드체계는 아래 (4)와 같이 口訣字의 子音 규정에 오류가 있었다.

(4) a. 문자번호 1d0f : ᄉᆞ (과 → 여)
b. 문자번호 1d58 : 難 (란 → 난)
c. 문자번호 1d59 : 彼 (려 → 녀)
d. 문자번호 1d35 : ᄀᆡ (뎨 → 졔)
e. 문자번호 1dc4 : ᄂᆞ (온 → 오)
f. 문자번호 1dc5 : ᄃᆞ (온 → 오)
g. 문자번호 1dc6 : ᄑᆞ (온 → 오)
h. 문자번호 1dce : ᄋᆞ (응 → 이)
i. 문자번호 1dcf : 應 (응 → 이)
j. 문자번호 1ddc : ᄒᆞ (인 → 이)
k. 문자번호 1ddd : ᄌᆞ (자 → 뎨)

(4)의 a는 연구자들의 독법 수정에 따라 그 표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종래 'ᄉᆞ'는 그 기능을 중시하여 '과'로 읽어왔으나 김영만(1986)과 이승재(1993b)에서 'ᄉᆞ'가 '亦'의 윗부분의 형태로부터 왔음이 밝혀졌다. (4)의 b와 c는 자음의 전용현상에서 대표음을 잘못 설정한 것에서 발생된 오류이다. (4)의 b와 c에 대한 표음을 '란', '려'가 아니라 '난', '녀'로 규정한다면 '란', '려'는 국어의 음운규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표음을 '난'과 '녀'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d에서 k까지는 코드체계 규정당시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② <훈글> 2.0.의 口訣字 코드체계는 아래 (5)와 같이 口訣字의 자형규정에 오류가 있었다.

(5) a. 문자번호 1d52 : ᄅᆞ(ㄹ)
b. 문자번호 1d53 : ᄂᆞ(라)
c. 문자번호 1dd7 : ᄅᆡ(이)
d. 문자번호 1db5 : ᄋᆞ(어)

e. 문자번호 1dba : ㅅ(여)

(5)의 a에서 c까지는 결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자형의 변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a의 'ᄀᆞ'는 'ᄀᆞᆞ'로 수정되어야 하고 b의 'ㆍ'는 큰 자형으로 수정되어 변별성을 증대시켜야 하고 'ᄅᆞ'는 'ᄅᆞᆞ'로 수정되어야 한다. (5)의 d-e는 자형의 규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d의 'ᄉᆞ'는 'ᄉᆞᆞ'로 e의 'ㅅ'는 'ㅅᆞ'로 수정되어야 한다.

③ 구결자들간의 변이형에 대한 개념규정과 그 적용이 명백하지 못하였다. 아래 (6)의 a계열과 b계열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지 구분해야 할 지에 대한 것이 명백하지 못하였다. 이 두 부류를 244자의 구결자 코드체계에서는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했지만 이들 두 부류가 보여주는 자형상의 차이는 개인적인 필기습관에 따른 것으로 변별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된다.

(6) a. ᄌᆞ, ᄍᆞ, ᄎᆞ , ᄒᆞᆫ, ㅅ
b. ᄌᆞ, ᄍᆞ, (ᄎᆞ, ᄎᆞ) , ᄒᆞᆫ, ᄋᆞ

④ 남풍현(1990)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표음의 전용현상으로 그 표음을 통합할 수 있는 口訣字들을 분리하여 목록에 등재한 오류가 있었다. 즉 아래 (7)의 a계열과 b계열을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 오류가 있었다.

(7) a. ㅅ(ᄀᆞ, 1d00), ᄇᆞ(ᄂᆞ, 1d26), ᄋᆞ(ᄃᆞ, 1d44), ᄌᆞ(ᄃᆞ, 1d45), ᄆᆞ(ᄃᆞ, 1d46)
b. ㅅ(기, 1d18), ᄇᆞ(ᄂᆞᆯ, 1d27), ᄋᆞ(ᄃᆞᆯ, 1d48), ᄌᆞ(ᄃᆞᆯ, 1d49), ᄆᆞ(ᄃᆞᆯ, 1d4a)

(7)의 a계열과 b계열이 <훈글> 2.0.의 244자 口訣字 코드체계에는 모두 등재되었지만 남풍현(199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대표음의 전용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간단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⑤ 문자번호 '1D7C'의 'ᄆᆞᆨ(며)'는 구결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자형이다.

이 자형은 이두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⑥ 1992년 이전에 소개된 口訣資料에 나타난 口訣字가 누락되었다. 김두찬 교수는 '禾'가 標準口訣字 목록에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고 'ㅁ', 'ㅅ', 'ㅈ', '共' 등의 口訣字를 새롭게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이승재(1993a)에 따르면 'ㅋ', '行', 'ㄴ' 등의 口訣字가 목록에 누락되었다.

⑦ 1992년 이후에 새로운 口訣資料가 상당수 소개되어 이들 口訣資料에 새로운 口訣字가 나타나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구결자의 추가는 새로운 口訣資料가 발굴될 때마다 제기될 것이다.

⑧ 口訣字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이다. 口訣字의 배열순서를 일차적으로 口訣字의 表音에 따라 배열하는 것과 동일한 表音을 가지는 口訣字의 배열순서를 획수가 적은 것에서 많은 순서로 배열하는 기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삼차적인 배열기준으로 동일한 口訣字의 省劃의 口訣字와 全字의 口訣字의 배열순서를 省劃의 口訣字에서 全字의 口訣字의 순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全字口訣字에서 省劃口訣字의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두찬 교수가 이견을 제시하였다. 김두찬 교수는 구결연구의 초심자들을 위하여 口訣字의 배열을 省劃의 口訣字에서 全字의 口訣字로 배열하기보다는 全字의 口訣字에서 省劃의 口訣字의 순서로 배열할 것을 제안하였다.

2. 口訣資料에 나타난 口訣字

口訣資料는 현재 계속 발굴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이미 알려진 자료도 아직 정리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결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이들 자료에 나타난 口訣字의 目錄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口訣字의 이상적인 코드체계를 규정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1) 口訣資料 目錄

口訣字의 目錄이 구결 연구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고된 口訣資料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이들 자료가 반영하고 있는 국어의 연대를 구결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口訣資料]	[口訣 記寫年代 下限]
1) 舊譯仁王經 上 釋讀口訣	12C 중엽[5]
2) 大方廣佛華嚴經疏 釋讀口訣[6]	
3) 大方廣佛華嚴經 卷 14 釋讀口訣	
4) 金光明經 卷 3 釋讀口訣	
5) 釋華嚴敎分記 釋讀口訣[7]	
6) 瑜伽師地論 卷 20 釋讀口訣	13C 후반[8]
7) 安東本 楞嚴經 順讀口訣	13c[9]
8) 大邱本 楞嚴經 順讀口訣	13c
9) 祇林寺本 楞嚴經 順讀口訣	송성문본 보다 앞선 시기[10]
10) 宋成文本 楞嚴經 順讀口訣	15C
11) 梵網經 順讀口訣	14C 초엽
12) 佛說四十二章經 順讀口訣	고려말
13) 南明集 順讀口訣	14C 말엽
14) 直持心體要節 順讀口訣	14C 말엽 또는 15C 초엽
15) 南豊鉉本 法華經 (A本) 順讀口訣	15C 전반기

---

5) 이 자료의 연대추정에 대해서는 南豊鉉(1985)을 참조.

6) 이 자료를 포함하여 3), 4)의 구결자료에 출현하는 구결자의 목록에 대해서는 남권희(1994)에 소개되어 있다. 3)의 자료는 1)과 2)의 중간적인 시기의 국어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 4)의 자료는 어느 시기의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으나 고려시대의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7) 이 자료는 高麗大藏經에 보이는 구결자료로 안병희(1987)에서 이 자료에 대해 논하고 있다.

8) 이 자료가 보여주는 구결자료의 연대추정에는 南豊鉉(1993) 참조.

9) 이 구결자료와 8), 10)의 구결자료가 보여주는 연대에 대해서는 南豊鉉(1990) 참조.

10) 이 구결자료와 11)-19)의 구결자료가 보여주는 연대에 대해서는 李丞宰(1993a) 참조.

16) 南豊鉉本 法華經 (B本) 順讀口訣 15C
17) 大邱本 法華經 順讀口訣 15C
18) 長谷寺 法華經 順讀口訣 16C 초엽[11]
19)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順讀口訣 14C 후반 또는 15C 또는 16C[12]
20) 기타의 중세국어 順讀口訣 15C 또는 16C[13]

위의 口訣資料 중 1), 7)-20)의 口訣資料는 1992년 이전에 소개된 것이고 2)-5)는 1992년 이후에 남권희 교수에 의하여 새로이 소개된 자료이며 6)은 1993년 남풍현 교수에 의해 새로이 소개된 자료이다. 그러므로 2)-6)의 口訣資料에는 새로운 口訣字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20)은 안병희(1997)에서 소개된 口訣資料들을 편의상 하나로 묶어 제시한 것이다.

이들 자료 이외에 1235년의 간기를 가지는 『楞嚴經』 順讀口訣資料, 1315년의 干記를 갖는 『天台四敎儀』 順讀口訣資料,[14] 1381년의 간기를 갖는 『禪宗永嘉集』 順讀口訣資料 등이 남권희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이들 자료의 口訣字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제외하기로 한다.

2) 口訣字의 형성원리

先學들의 借字表記法에 관한 연구와 남풍현 교수의 借字表記法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借字口訣字는 아래 (8)과 같은 원리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보고되었다.

(8) I. 借字口訣字의 字音을 규정하는 원리

11) 이 구결자료가 보여주는 연대에 대해서는 沈在箕(1976) 참조.
12) 이 구결자료가 보여주는 연대에 대해서는 최은규(1993) 참조.
13)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14) 남권희(1994)에 따르면 이 구결자료에 다른 구결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결자 '吉, 亻'등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구결자를 제외하고 논하기로 한다. 남권희(1994)에서 이 구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a. 漢字의 訓을 빌어 借字口訣字의 字音을 정한다.
b. 漢字의 音을 빌어 借字口訣字의 字音을 정한다.

II. 借字口訣字의 字形을 규정하는 원리
a. 漢字의 全字를 변형없이 빌어와서 借字口訣字의 자형을 정한다.
b. 漢字의 全字를 省劃하여 全字의 일부로 借字口訣字의 자형을 정한다.
c. 省劃된 자형을 변형하여 借字口訣字의 자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借字口訣字 형성의 원리가 漢字에 적용되어 借字口訣字가 형성되는 한가지 실례를 보이면 아래 (9)와 같다.

(9)

[漢字原字]		[字音결정]	[字形결정]
是	音假	(시) — 省劃 → 丶	[Ib, IIb 적용]
		(시) — 全字 → 是	[Ib, IIa 적용]
	訓讀	(이) — 省劃 → 丶 또는 丨	[Ia, IIb 적용]
		(이) — 全字 → 是	[Ia, IIb 적용]

위의 (9)는 '是'를 바탕으로 5종류의 口訣字가 만들어진 것을 예로 보인 것이다. 이 경우는 借字口訣字 형성의 원리 Ia, Ib, IIa, IIb가 모두 적용되어 借字口訣字 "丶(시), 是(시), 丶(이), 丨(이), 是(이)"가 만들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가지 원리만 적용되어 하나의 借字口訣字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한자에 대하여 借字의 방식을 달리하여 여러 자형의 借字口訣字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借字口訣字란 문자체계가 훈민정음처럼 단일한 문자체계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시대를 넘어서서 전승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借字口訣字를 만들어 쓰는 문자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자 '果'를 모체로 하여 'ㅅ(과, 省劃, 音假)', 'ホ(과, 省劃 音假)', '曰(과, 省劃, 音假)', '果(과, 全字, 音假)' 등과 같은 借字口訣字가 발생하게 되었다.

(8Ic)의 借字口訣字 형성원리는 남풍현(1990)에서 밝혀진 것으로 'ᄀᆞ>ᄀᆞᆺ'와 'ᄭᅩ>ᄭᅩᆞ>ᄭᅩ' 등의 口訣字 발달과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 口訣字 字音의 轉用法

借字口訣字 형성의 원리 I과 II에 의해 형성된 口訣字들은 그 자음이 전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 자음의 전용은 口訣字의 문자체계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口訣字의 자음이 전용되는 양상은 남풍현(1990)에서 아래 (10)과 같이 정리되었다.

(10) 借字口訣字 字音의 轉用

1. 일형태 일차자 표기에 의한 대표음의 전용
   예) 'ㄱ'은 '온', '은', '는', '는', 'ㄴ' 등을 표기한다.
   'ㄴ'은 '이', 'ㅣ', '/'을 표기한다.
2. 대립모음으로의 전용
   예) 'ᄒᆞ' 가 → 거
   'ᄉᆞ' 들 → 돌
   'ᅀᅩ' 샤 → 셔
3. 유기음으로의 전용
   예) 'ᄒᆞ' 가 → 카
   'ᄆᆞ' 고 → 코
4. 음의 탈락에 의한 전용
   예) 'ᄂᆞᆯ' 놀 → 노
   'ᄉᆞ' 돌 → 도
5 'ㄴ'과 'ㄹ'의 혼용에 의한 전용
   예) 'ㄴ' ㄹ/롤 → 놀
   'ᄋᆞ' 노 → 로
6. 마찰음에서 파찰음으로의 전용
   예) 'ᄌᆞ' 'ㅅ' → 'ㅈ'

위의 (10.1.)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보여지는 자음의 전용이다. 국어에서 주제의 보조사는 체언 말음절의 음절 조건에 따라 'ᄋᆞᆫ, 은, 는, 는, 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口訣에서 'ᄋᆞᆫ, 은, 는, 는, ㄴ'을 口訣字 'ㄱ'으로만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주격조사를 표기하는 'ㅣ'이나 대격조사를 표기하는 '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0.2.)는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음의 전용이다. (10.3.)은 어간 'ᄒᆞ-'가 어근의 조건에 따라 축약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10.4.)-(10.6.) 등에서의 자음의 전용은 국어의 규칙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음의 전용은 우리의 차자표기의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자음의 전용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음절경계에서의 음의 중첩에 따른 것 등 여러가지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음의 전용현상은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규정하는 원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口訣字의 總目錄과 出典

앞의 (8)에 제시된 口訣資料에 나타나는 口訣字의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한글> 2.0.의 244자 구결자 코드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口訣字와 口訣字 表音의 추정에 이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한다.

(11) A. ᄀᆞ(가,可), ᄆᆡ(가,加), 良(란,良), ᄉᆞ(리,利), ᄆᆞᆯ(물,勿), 飛(놀,飛), 於(어,於), 如(여,如), 牛(우,牛), 位(위,位), 月(은,殷), 立(ㅁ,音), 尹(이,伊), 中(히,中), 之(예,之), 打(타,打), 行(니,行), 分(히,分)

B. ㅣ(다,多), 上(뎨,上), ᄀᆡ(셔,徐), ᄭᅵ(뎨,第), 十(긔/희,中), ᄎᆡ(여/져,齊)

C. 只(ㄱ,良), ᄃᆞ(여,與), 印(긋,印), ㄷᆞ(ㅅ,止), 造(짇,造), 好(호,好), ᄉᆞ(ᄉᆞ,賜)

D. 支(다?,支?), 三(삼?,三?), 成(일?,成?), ᄉᆞ(노?,奴?), ᄉᆞ(히?,?), ᄀᆞ(익?,?), 毛(?,?), 巴(?,?), ㄱ(?,?), 子(?,?), 甲(?,?), 千(?,?)

(11A)의 구결자들은 <훈글>의 244자 구결자 코드체계에 누락된 것들이다. (11A)의 구결자들이 <훈글>의 244자 구결자에 누락되었던 것은 244자 구결자 코드체계 결정 당시의 오류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까지 알려진 구결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11B)의 구결자들은 독음추정과 한자 원자 추정에 이견이 있는 것이다. 'ㅣ'의 한자 원자를 '多'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이승재(1993b)은 '如'로 보고 있다. 'ㅗ'의 독음은 일반적으로 '뎨'로 추정되고 있으나 김두찬 교수는 '려'로 그 독음을 추정하고 있다. 'ㅓ'는 남풍현(1976)에서는 '徐'에서 온 것으로 보아 독음을 '서'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승재(1993b)에서는 '彼'에서 온 것으로 보아 독음을 '뎌'로 추정하고 있다. 'ᄫ'는 남풍현(1976)에서 '뎨'로 추정하고 있으나 김두찬 교수는 '劣'에서 형성된 구결자로 파악하여 그 독음을 '려'로 추정하고 있다. 'ㅜ'는 종래 '히/희'로 그 독음이 추정되어 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남풍현 교수 등에 의해 '긔'까지도 표음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ㅋ'는 종래 '여'로 추정되어 왔으나 김영만(1986), 이승재(1993b)에서 '齊'에서 형성된 구결자로 보아 그 독음을 '졔'로 추정하고 있다.

(11C)의 구결자들은 1992년 이후 소개된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자들이다. ''의 독음은 남풍현(1993)에서 'ㄱ/기'로 추정되었으며, ', , '의 독음은 남풍현(1994)에서 '긋, 짓, ㅅ'으로 추정되었다. ''는 이승재(1993b)에서 'ᄉᆞ'로 추정되었으며 '', ''는 남권희(1994)에서 '여'와 '호'로 추정되었다.

(11D)의 구결자들 역시 1992년 이후 소개된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자들이나 그 독법이 현재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다.

3. 컴퓨터 입출력을 위한 口訣字의 코드체계

1) 口訣字의 코드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口訣字의 코드체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정하기 위한

원칙들에 대한 논의를 보여준 것은 아래 (12)와 같다.

(12) A. <한국어 전산학회>의 口訣字 코드체계
B. <훈글> 2.0.의 口訣字 코드체계
C.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입장
D. 이승재(1993b)의 제안

(12A)의 코드체계는 1989년 <한국어전산학회>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이 코드체계는 口訣字와 吏讀字를 구별하지 않고 100자의 口訣字와 吏讀字를 <보석글 II>에서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코드체계의 100자에 대한 목록은 김두찬 교수와 이승재 교수가 선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목록을 선정하는 원칙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까지 알려진 口訣字와 吏讀字 가운데에서 자주 쓰이거나 漢字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없는 口訣字나 吏讀字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코드체계의 목록은 아래 (13)과 같다.

(13) ㄱ ㄱ ㄷ ㄴ ㅁ ㅂ ㅅ ㅅ ㅅ ㅂ ㅌ ㅌ ㄱ ㅋ ㅈ ㅊ
ㅣ ㅌ ㅇ ㅂ ㅁ ㅅ ㅅ ㅅ ㅂ ㅅ ㅅ ㅣ ㅠ ㅍ ㅍ ㅠ
ㅘ ㅏ ㅣ ㅊ ㅂ ㄴ ㅌ ㄱ ㅍ ㅍ ㅈ ㅅ ㄱ ㅊ ㅂ ㅅ
ㅑ ㅋ ㅋ ㅈ ㅅ ㅅ ㅂ ㅡ ㅎ ㅍ ㅍ ㄴ ㅊ ㅂ ㅍ ㅂ
ㅂ ㅈ ㄱ ㄱ ㄴ ㅂ ㅎ ㅡ ㅎ ㅈ ㄱ ㅍ ㅏ ㅅ ㅍ ㄱ
ㅎ ㄱ ㄹ ㅅ ㅣ ㅅ ㅋ ㅌ ㅅ ㅅ ㅅ ㅅ ㅅ ㅅ 波 ㅏ
ㅅ ㅈ ㅅ ㅎ

이 목록에는 漢字와 字形이 일치되는 것은 제외되고 省劃의 口訣字만이 목록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발견되었던 모든 省劃의 口訣字가 이 목록에 모두 수용되지 못하고 일부만 수용되었다. 이것은 <옛글자한글>의 주된 관심이 口訣字의 컴퓨터 입출력이 아니라 옛글자의 컴퓨터 입출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3)에 제시된 구결자 자형은 <훈글>의 자형이다. <보석글

Ⅱ>에서의 구결자 자형은 이처럼 미려하지 못하다.

(12B)는 199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한글> 2.0. 244자 구결자 코드체계이다. 이 코드체계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조남호 선생이 <한글과 컴퓨터>에 문서작성기에서 구결자의 입출력을 요청하고 <한글과 컴퓨터>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口訣字의 목록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결연구회의 주관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 코드체계는 口訣字 목록을 결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고려한 최초의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 코드체계에서의 口訣字 목록의 선정기준은 개념적으로는 분명하지 못하였지만 대체로 자형이 다르거나 자음이 다르면 목록에 포함시키는 원칙을 가졌다. 이 코드체계에 적용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12C)는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코드체계를 규정하는 원칙을 논의했으므로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15] 이 견해는 국제코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의한 것으로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자형중심으로만 정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것은 ISO가 문자코드를 배정할 때의 기본원칙으로 자형이 같으면 자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D)는 口訣字의 목록을 결정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승재(1993b)에서 논의되었다. 이승재(1993b)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앞서 제시했던 <훈글> 2.0. 244자 口訣字의 목록 선정원칙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선정원칙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선정원칙에 대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큰 장점으로 생각된다. 이승재(1993b)에서 제시된 목록 선정원칙은 아래 (14)와 같다.

(14) a. 同一 讀法의 원칙

---

15) 구결연구회에서는 <훈글>2.0.의 구결자 코드체계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국립국어연구원을 통하여 국제코드표준화 기구(ISO) 한국 위원들에게 보내었다. 1992년 7월 ISO의 회의 결과 구결자를 국제문자코드에 등재하는 문제는 다음의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코드영역의 제한이라는 문제로 자형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b. 同一 變形의 원칙
c. 同一 書體의 원칙
d. 同一 時代의 원칙(同一 資料의 원칙, 同一 筆者의 원칙)

(14a)의 '同一 讀法의 원칙'은 口訣字의 字音에 관계된 원칙으로 讀法에 따라 그 表音이 달라지면 字形이 다르거나 또는 같거나 간에 서로 다른 口訣字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음'으로 읽히는 'ᄒᆞ'와 '써'로 읽히는 'ᄒᆞ'을 이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4b)의 '同一 變形의 원칙'은 漢字 原字를 바탕으로 口訣字에로의 변형 과정이 다르면 서로 다른 口訣字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한자 '立'을 바탕으로 형성된 口訣字 'ᄒᆞ(써)'과 'ᅀᅩ(써)'는 그 변형과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하는 예로 들고 있다. (14c)의 동일 서체의 원칙은 구결자의 한자 원자가 같지만 구결자의 바탕이 된 한자 원자의 서체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이승재(1993b)는 이에 대한 예로 'ᄂᆞ(여)'와 'ㅗ(여)'를 들고 있다. 즉 전자는 '亦'의 草書體에서 변형된 것이며 후자는 '亦'의 楷書體에서 변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4d)의 '同一 時代의 원칙'은 文字史的인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字體의 차이를 보일 경우 서로 다른 口訣字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ᄀᆞ'와 'ᄀᆞᆺ'를 들고 있다.

2) 口訣字 코드체계의 확립원칙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口訣字의 目錄을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서 口訣字의 目錄을 결정해야 하고 口訣字의 目錄을 배열하는 원칙을 정한 다음 口訣字 배열의 순서를 규정해야 한다.

먼저 口訣字의 目錄을 결정하는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는 口訣資料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곧 문서작성기에서의 자유로운 口訣字 입출력이라는 과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口訣字의 목록을 결정

하는 원칙은 口訣字의 문자론적인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口訣資料를 컴퓨터로 처리할 때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구결자료를 검토해 보면 특정 문헌에 아주 적은 빈도로 쓰인 구결자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구결자를 구결자의 코드체계에 등록해야 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는 제외하고 구결자 목록선정의 원칙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구결자 목록의 선정원칙을 제시하면 아래 (15), (16)과 같다.

(15) 同一 讀法의 원칙에 따라 口訣字의 목록을 정한다.
  A. 독법이 다르면 자형이 다르거나 같거나 간에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B. 자음의 전용현상에 따라 독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한다.

(16) 同一 變形의 원칙에 따라 口訣字의 목록을 정한다.
  A. 자형 형성방식이 달라 자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B. 한자 원자가 다르고 자형 형성방식이 다르나 자형이 우연히 같아졌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C. 개인적인 필기 습관에 따른 자형상의 미세한 차이는 변별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한다.
  D. 자형 형성방식이 같으나 시대적인 변화로 분명한 자형상의 차이를 보여 줄 경우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15)와 (16)에 제시된 원칙은 이승재(1993b)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승재(1993b)에서 제시된 원칙과 비교해 보면 몇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15)와 (16)에는 이승재(1993b)의 '同一 書體의 원칙'이 (16) '同一 變形의 원칙'에 포함되어 설명되어 있다. 이승재(1993b)의 설명대로 'ㅅ'는 '亦'의 草書體로부터 형성된 자형이고 'ㅗ'는 '亦'의 楷書體로부터 형성된 자형이라면 이는 자형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同一 變形의 원칙'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16] 둘째 이승재(1993b)의 '同一 時代의 원칙'은 구결자 자형과 자음의 시간적 공간적인 편차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同一 讀法의 원칙'과 同一 變形의 원칙'에 평행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독법의 동일성과 변형의 동일성을 규정짓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15)와 (16)에는 이승재(1993b)와는 다르게 독법의 동일성과 변형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5)의 원칙은 이승재(1993b)의 '同一 讀法의 원칙'과 유사하다. 이 원칙은 독법이 다르면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이승재(1993b)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17), (18)과 같다.

(17)

漢字 原字	省劃字	表 音	口訣字 形成 方式
彌	尒	금	訓假, 省劃
彌	尒	며	音假, 省劃
時	时	시	音假, 省劃
時	时	제	訓假, 省劃
良	良	아	訓假, 全字
良	良	란	音假, 全字
之	之	예	訓假, 全字
之	之	지	音假, 全字
臥	卜	누	訓假, 省劃
臥	卜	와	音假, 省劃
乎	丿	호	音假, 省劃
乎	丿	오	訓假, 省劃
乎	𠂉	호	音假, 省劃
乎	𠂉	오	訓假, 省劃

16) 『大方廣佛華嚴經』 釋讀口訣에 'ㅅ'와 'ㅗ'의 중간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ㅗ̀'이 나타나므로 'ㅅ'와 'ㅗ'의 문제는 자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상의 차이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곧 'ㅗ>>>ㅅ'의 변형 관계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18) 借字口訣字 表音의 轉用
앞의 (10)에서 제시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7)은 漢字 原字가 같고 자형의 형성방식이 같아 구결자의 자형이 같아졌으나 독법이 달라 口訣字의 표음이 다른 경우이다. 이런 경우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형도 다르고 독법도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17)에서 각쌍의 구결자들은 자음의 형성방식이 音假냐 訓讀이냐에 따라 그 표음이 달라진 것이다. ISO의 견해처럼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자형중심으로만 할 경우 (17)의 口訣字들 각 쌍들은 하나의 口訣字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시하고 口訣字의 코드체계를 결정할 경우 口訣字의 배열순서를 자음의 관점에서 배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口訣字의 SORT나 검색에 어려움이 따른다. 口訣字의 배열순서를 자음의 관점에서 배열할 수 없다면 口訣字의 획수에 따라 배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口訣字의 입력시 매우 불편하다. 아울러 口訣字의 SORT나 검색에 두 번의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KSSM 4888자 한자코드체계가 자형중심이 아니라 자음 중심으로 규정된 것을 참고한다면 구결자 역시 字音의 요소도 고려하여 그 목록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18)은 표음의 전용현상에 따른 표음들은 인정치 않고 대표음만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비록 독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보여지는 표음의 전용현상을 국어의 음운론적 규칙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口訣字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독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 모두를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할 경우 구결자의 코드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것이다.

(16)의 원칙은 이승재(1993b)의 '동일 변형의 원칙'과 유사하다. 자형의 형성과정이 다르면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이승재(1993b)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16A)-(16D)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6A)는 한자 원자가 같으나 자형의 형성방식이 달라 구결자의 자형이 다

른 경우 서로 다른 口訣字로 규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아래 (19)의 口訣字들 각각을 서로 다른 口訣字로 규정할 수 있다.

(19)

漢字 原字	口 訣 字
果	八(과), 木(과), 曰(과)
羅	罒(라), 罒(라), 冫(라), 丶(라)
驢	尸(러), 尸(러), 馿(러)
彌	尒(며), 弥(며)
舍	人(샤), 舍(샤)
是	乀(이), 刂(이)
時	寸(시), 时(시)
貌	旧(슥), 皃(슥), 皃(슥)
良	氵(아), 艮(아)
於	方(어), 扌(어), 冷(어)
亦	亠(여), 丶(여)
乎	丿(호), 勹(호)
隱	乛(ㄴ), 阝(ㄴ)
音	立(ㅁ), 立(ㅁ)
邑	卫(ㅂ), 巴(ㅂ)
?	广(마), 庀(마)

(19)의 예들은 한자 원자가 동일하나 省劃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음을 표기하지만 자형이 달라진 것이다. 일례를 들면 (19)에서 '八, 木, 曰' 등은 한자 '果'를 모체로 하여 자형을 형성한 것으로 '八'는 '果'의 아랫 부분 중 일부를 '木'는 아랫 부분을 '曰'는 윗 부분의 일부를 차용하여 자형을 형성한 것이다.

아래 (20)은 한자 원자가 달라 자형 형성방식이 다른 것으로 (16A)의 원칙에 의해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20)

漢字 原字	口訣字	表音	形成方式
去	厶	거	省劃, 音假
巨	巨	거	全字, 音假
戈	戈	과	全字, 音假
果	人	과/와	省劃, 音假
斗	斗	두	省劃, 音假
豆	豆	두	全字, 音假
利	禾	리	省劃, 音假
里	日	리	省劃, 音假
四	四	스	全字, 音假
士	士	스	全字, 音假
是	丶	시	省劃, 音假
時	寸	시	省劃, 音假
示	二	시	省劃, 音假
牙	牙	아	全字, 音假
阿	阝	아	全字, 音假
五	五	오	省劃, 音假
午	丿	오	省劃, 音假
吐	吐	토	全字, 音假
土	土	토	全字, 音假

(16B)는 자형의 형성방식이 다르나 우연히 그 자형이 같아진 경우에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예들은 아래 (21)과 같다. (21)에서 '尹(나)'는 '那'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尹(이)'는 '伊'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이들은 그 자형이 우연히 같아졌지만 자형의 형성방식이 다르며 또한 자음의 형성방식도 다른 것이다. '尹(나)'는 한자 원자 '那'의 오른쪽을 省劃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尹(이)'는 한자 원자 '伊'의 왼쪽을 省劃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1)

漢字 原字	口訣字	表音	形成方式
果	ホ	과	音假, 省劃
等	ホ	돌	音假, 省劃
那	尹	나	音假, 省劃
伊	尹	이	音假, 省劃
利	刂	리	音假, 省劃
是	刂	이	音假, 省劃
音	亠	ㅁ	音假, 省劃
立	亠	셔	訓假, 省劃
音	立	ㅁ	音假, 省劃
立	立	셔	訓假, 全字
果	田	과	音假, 省劃
里	田	리	音假, 省劃
?	尸	ㄹ	音假, 省劃
驢	尸	러	音假, 省劃
只	八	ㄱ/기	音假, 省劃
果	八	과	音假, 省劃
要	覀	요	音假, 省劃
西	覀	셔	音假, 全字
爲	丷	ᄒᆞ	訓假, 省劃
米	丷	미	音假, 省劃
羅	罒	라	音假, 省劃
四	罒	ᄉᆞ	音假, 全字
所	戶	소	音假, 省劃
戶	戶	호	音假, 全字

한편, '加, 去, 巨' 등 全字의 口訣字들도 口訣字의 목록에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全字의 구결자들은 한자 원자를 변형없이 자형을 형성한 것으로 '동일 변형의 원칙'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는 口訣字이다. 비록 漢字를 이용해서 이를 입력할 수 있다 하더라도 口訣字의 정연한 체계를 위해서 그리고 口訣字인지 漢字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全字의 口訣字들도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6C)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 아래 (22)이다. 아래 (22)의 a계열과 b계열이 미세한 자형상의 차이를 보여주나 이 차이는 형태상의 차이가 아니라 서체 상의 차이로 생각해도 무방한 차이이다. 이러한 경우 둘을 구별하기 보다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구결자의 코드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a. 尒, 灬, 扌 , 見, 入
b. 尒, 灬, (扌, 扌) , 見, の

(16D)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 아래 (23)이다.

(23) a. 罒(라), 罒(라), 丷(라), 丶(라)
b. 攵(며), 夂(며)

(23)의 a와 b는 '罒>丷>丶', '攵>夂'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자 원자로부터 구결자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후대의 자형들이 선대의 자형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곧 후대의 자형에 통시적 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자형 중심으로만 구결자의 목록을 결정할 경우 구결자의 배열 순서는 구결자의 획수에 따라 배열할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자형이 둘 이상의 자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결자의 목록이 자형과 자음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할 경우 구결자의 배열 순서는 1차적으로는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2차적으로는 全字의 구결자에서 생획의 구결자로 3차적으로는 획수가 많은 것에서 획수가 적은 것으로 배열해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본 연구에서는 먼저 <훈글> 2.0. 244자의 구결자 코드체계의 제정경과, 제정원칙,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훈글> 2.0. 244자의 구결자 코드체계의 제정경과, 제정원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구결자의 효율적인 코드체계를 설정할 때 <훈글> 2.0.의 244자 구결자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두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1992년 이래로 새로이 소개되어온 구결자를 포함하여 구결자 총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훈글> 2.0.의 244자 구결자 코드체계에 누락된 구결자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 힘입어 본 연구에서는 구결자의 효율적인 코드체계를 규정하기 위한 제 원칙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同一 讀法의 원칙에 따라 口訣字의 목록을 정한다.

A. 독법이 다르면 자형이 다르거나 같거나 간에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B. 자음의 전용현상에 따라 독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한다.

둘째 同一 變形의 원칙에 따라 口訣字의 목록을 정한다.

A. 자형 형성방식이 달라 자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B. 한자 원자가 다르고 자형 형성방식이 다르나 자형이 우연히 같아졌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C. 개인적인 필기 습관에 따른 자형상의 미세한 차이는 변별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한다.

D. 자형 형성방식이 같으나 시대적인 변화로 분명한 자형상의 차이를 보여 줄 경우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參 考 文 獻

국립국어연구원(1992), 문자열검색·사전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金斗燦(1986),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_____(1989), 「筆寫本 蒙山法語略錄의 口訣에 대하여」, 『국문학논집』 13, 단국대 국문과.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 『國語學新硏究』(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南權熙(1994a), 「高麗末 口訣資料 6種 紹介」, 口訣硏究會 94년 겨울 공동연구회.

_____(1994b), 「高麗 釋讀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紹介」, 구결연구회 월례강독회, 1994.11.5.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檀國大 東洋學 硏究所.

南豊鉉(1980), 「口訣과 吐」, 『국어학』 9, 국어학회.

_____(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_____(1990), 「高麗末, 朝鮮初期의 口訣硏究」, 『진단학보』 69.

_____(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세대 국학연구소.

_____(1994), 「新譯華嚴經 卷 14의 高麗時代 釋讀口訣」, 『國文學論集』 14,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沈在箕(1976), 「長谷寺法華經의 口訣」, 『미술자료』 19.

安秉禧(1977), 『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일지사.

_____(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李丞宰(1993a),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_____(1993b),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國語學會

최은규(199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한글과 컴퓨터(1992), 『한글 2.0 기능설명서』, 한글과 컴퓨터.
홍윤표 외 8인(1991), 「한글 옛글자의 컴퓨터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 전산학』 창간호, 한국어전산학회.

부록

한자 원자와 口訣字의 표음을 함께 제시한다. 한자 원자를 추정할 수 없는 口訣字의 한자 원자나 또 그 표음을 추정할 수 없는 口訣字의 표음에는 '?'로 제시한다.

구결자는 손으로 기입한 것이어서 연구자에 따라 구결자 자형을 달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결자가 출현하는 문헌의 제시는 여기에서는 유보하고 구결자의 목록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𠀋(ㄱ,良, 全字,音假)
八(ㄱ,只, 省劃,音假)
力(가,加, 省劃,音假)
加(가,加, 省劃,音假)
叻(가,加, 全字,音假)
加(가,加, 全字,音假)
可(가,可, 省劃,音假)
可(가,可, 全字,音假)
去(거,去, 省劃,音假)
去(거,去, 全字,音假)
巨(거,巨, 全字,音假)
令(게,令, 全字,訓讀)
在(겨,在, 省劃,訓讀)
口(고,古, 省劃,音假)
古(고,古, 全字,音假)
昆(곤,昆, 全字,音假)
戈(과,戈, 全字,音假)
八(과,果, 省劃,音假)
木(과,果, 省劃,音假)
曰(과,果, 省劃,音假)
人(과,果, 省劃,音假)
果(과,果, 全字,音假)
官(관,官, 全字,音假)
尒(금,彌, 省劃,訓讀)
尒(금,彌, 省劃,訓讀)
印(긋,印, 全字,訓讀)
己(긔,己, 全字,音假)
這(ᄌᆞ,這, 全字,訓讀)
卩(ㄴ,隱, 省劃,音假)
ㄱ(ㄴ,隱, 省劃,音假)
隱(ㄴ,隱, 全字,音假)
男(나,那, 省劃,音假)
尹(나,那, 省劃,音假)
那(나,那, 全字,音假)
乃(나,乃, 全字,音假)
難(난,難, 全字,音假)
女(녀,女, 全字,音假)
又(노,奴, 省劃,音假)
乂(노,奴, 省劃,音假)
論(논,論, 全字,音假)
了(뇨,了, 全字,音假)
卜(누,臥, 省劃,訓讀)
匕(니,尼, 省劃,訓讀)
尼(니,尼, 全字,訓讀)
行(니,行, 全字,訓讀)
斤(늘,斤, 全字,音假)
匕(늘,飛, 筆劃,訓讀)
飛(늘,飛, 全字,訓讀)
夕(다,多, 省劃,音假)
丨(다,多, 省劃,音假)
多(다,多, 全字,音假)
如(다,如, 全字,訓讀)
支(다,支, ? ,?)
大(대,大, 省劃,音假)
大(대,大, 全字,音假)
加(더,加, 省劃,訓讀)
力(더,加, 省劃,訓讀)
加(더,加, 全字,訓讀)
氐(뎌,底, 省劃,音假)
底(뎌,底, 全字,音假)
宁(뎌,宁, 省劃,訓讀)
丁(뎡,丁, 全字,音假)
上(뎨,上, 全字,訓讀)
弟(뎨,第, 省劃,音假)
田(뎬,田, 全字,音假)
巴(도,? , ?, ?)
刀(도,刀, 全字,音假)
都(도,都, 全字,音假)
斗(두,斗, 省劃,音假)
斗(두,斗, 全字,音假)
豆(두,豆, 全字,音假)
土(디,地, 省劃,音假)
地(디,地, 全字,音假)
矢(디,知, 省劃,音假)
知(디,知, 全字,音假)
陳(딘,陳, 全字,音假)
等(듼,等, 全字,音假)
冬(동,冬, 全字,音假)
木(동,等, 省劃,訓讀)
月(동,月, 全字,訓讀)
の(동,入, 省劃,訓讀)
入(동,入, 全字,訓讀)
弋(듸,代, 省劃,音假)
代(듸,代, 全字,音假)
厶(듸,?, 省劃,訓讀)
矣(듸,矣, 全字,訓讀)
尸(ㄹ,? , 省劃,?)
乚(ㄹ,乙, 省劃,音假)
乙(ㄹ,乙, 全字,音假)
罒(라,羅, 省劃,音假)
丶(라,羅, 省劃,音假)
冫(라,羅, 省劃,音假)
罒(라,羅, 省劃,音假)
羅(라,羅, 全字,音假)
良(란,良, 全字,音假)
馹(러,驢, 省劃,音假)
尸(러,驢, 省劃,音假)
戶(러,驢, 省劃,音假)
驢(러,驢, 全字,音假)
汝(러,汝, 全字,音假)
女(러,汝, 全字,音假)
呂(려,呂, 全字,音假)
要(려,要, 全字,音假)
以(로,以, 全字,訓讀)
以(로,以, 全字,訓讀)

ㅛ(로,以, 全字,訓讀)
以(로,以, 全字,訓讀)
录(록,? , 省劃,音假)
令(리,? , ? , ?)
刂(리,利, 省劃,音假)
禾(리,利, 省劃,音假)
禾(리,利, 省劃,音假)
利(리,利, 全字,音假)
曰(리,里, 省劃,音假)
里(리,里, 全字,音假)
吝(린,吝, 全字,音假)
立(口,音, 省劃,音假)
立(口,音, 省劃,音假)
音(口,音, 全字,音假)
马(마,馬, 省劃,音假)
麻(마,魔, 省劃,音假)
麻(마,魔, 省劃,音假)
麻(마,魔, 省劃,音假)
广(마,魔, 省劃,音假)
勹(마,勹, 全字,音假)
万(만,萬, 省劃,音假)
萬(만,萬, 全字,音假)
賣(매,賣, 全字,音假)
妹(며,彌, 省劃,音假)
弥(며,彌, 省劃,音假)
尒(며,彌, 省劃,音假)
久(며,彌, 省劃,音假)
分(며,彌, 省劃,音假)
彌(며,彌, 全字,音假)
ㄕ(면,面, 省劃,音假)
面(면,面, 全字,音假)
毛(모,毛, 全字,音假)
勿(믈,勿, 省劃,音假)
勿(믈,勿, 全字,音假)
未(미,未, 全字,音假)
丷(미,米, 省劃,音假)
米(미,米, 全字,音假)
囗(ㅂ,邑, 省劃,音假)
巴(ㅂ,邑, 省劃,音假)
邑(ㅂ,邑, 全字,音假)
火(ㅂ,火, 全字,訓讀)
七(人,叱, 省劃,訓讀)
叱(人,叱, 全字,訓讀)
三(삼,? , ? , ?)
亼(샤,舍, 省劃,音假)
舍(샤,舍, 省劃,音假)
舍(샤,舍, 全字,音假)
立(셔,立, 省劃,訓讀)
立(셔,立, 全字,訓讀)
彳(셔,徐, 省劃,音假)
一(셔,西, 省劃,音假)
西(셔,西, 全字,音假)
尸(소,所, 省劃,音假)
所(소,所, 全字,音假)
小(쇼,小, 全字,音假)
乀(시,是, 省劃,音假)
是(시,是, 全字,音假)
寸(시,時, 省劃,音假)
时(시,時, 省劃,音假)
時(시,時, 全字,音假)
二(시,示, 省劃,音假)
示(시,示, 全字,音假)
氏(시,氏, 全字,音假)
申(신,申, 全字,音假)
四(ᄉ,四, 全字,音假)
士(ᄉ,士, 全字,音假)
易(ᄉ,賜, 省劃,音假)
白(ᄉᆞᆷ,白, 全字,訓讀)
生(싱,生, 全字,音假)
氵(사,沙, 省劃,音假)
沙(사,沙, 全字,音假)
兒(ᄋᆞ,兒, 省劃,音假)
兒(ᄋᆞ,兒, 省劃,音假)
旧(ᄋᆞ,兒, 省劃,音假)
牙(아,牙, 全字,音假)
阿(아,阿, 全字,音假)
阝(아,阿, 全字,音假)
艮(아,良, 省劃,音假)
氵(아,良, 省劃,音假)
良(아,良, 全字,音假)
厂(애,厓, 省劃,音假)
厓(애,厓, 全字,音假)
つ(야,也, 省劃,音假)
也(야,也, 全字,音假)
方(어,於, 省劃,音假)
个(어,於, 省劃,音假)
才(어,於, 省劃,音假)
於(어,於, 全字,音假)
言(언,言, 省劃,音假)
言(언,言, 全字,音假)
孽(얼,蘖, 全字,音假)
余(여,余, 全字,音假)
ㄴ(여,如, 省劃,音假)
如(여,如, 全字,音假)
与(여,與, 省劃,音假)
予(여,與, 省劃,音假)
丶(여,亦, 省劃,音假)
亠(여,亦, 省劃,音假)
氵(여,亦, 省劃,訓讀)
亦(여,亦, 全字,音假)
曳(예,曳, 全字,音假)
之(예,之, 全字,訓讀)
ㄎ(오,五, 省劃,音假)
五(오,五, 全字,音假)
𠂉(오,午, 省劃,音假)

午(오,午, 全字,音假)
ノ(오,乎, 省劃,訓讀)
ㄱ(오,乎, 省劃,訓讀)
乎(오,乎, 全字,訓讀)
玉(옥,玉, 全字,音假)
盈(온,溫, 省劃,音假)
溫(온,溫, 全字,音假)
卜(와,臥, 省劃,音假)
臥(와,臥, 全字,音假)
西(요,要, 省劃,音假)
要(요,要, 全字,音假)
于(우,于, 全字,音假)
牛(우,牛, 全字,音假)
位(위,位, 全字,音假)
月(은,殷, 省劃,音假)
矣(의,矣, 全字,訓讀)
衤(의,衣, 省劃,音假)
衣(의,衣, 全字,音假)
乀(이,是, 省劃,訓讀)
刂(이,是, 省劃,訓讀)
是(이,是, 全字,訓讀)
尹(이,伊, 省劃,音假)
伊(이,伊, 全字,音假)
已(이,已, 全字,音假)
弋(익,? , ?, ?)
印(인,印, 全字,音假)
引(인,引, 全字,音假)
成(일,成, 全字,訓讀)
广(이,應, 省劃,音假)
應(이,應, 全字,音假)
刃(이,刃, 全字,音假)
时(재,時, 省劃,訓讀)
其(저,其, 全字,訓讀)
者(저,者, 全字,訓讀)
斉(저,齊, 省劃,訓讀)
齊(저,齊, 全字,訓讀)
之(지,之, 全字,音假)
⺅(人,止, 全字, ?)
止(지,止, 全字,音假)
子(즈,? , ? , ?)
他(타,他, 全字,音假)
打(타,打, 全字,音假)
吐(토,吐, 全字,音假)
土(토,土, 全字,音假)
下(하,下, 全字,音假)
何(하,何, 全字,音假)
ㄱ(호,乎, 省劃,音假)
ノ(호,乎, 省劃,音假)
乎(호,乎, 全字,音假)
好(호,好, 全字,音假)
尸(호,戶, 省劃,音假)
戶(호,戶, 全字,音假)
忽(홀,忽, 全字,音假)
屎(히,屎, 全字,音假)
兮(히,兮, 省劃,音假)
兮(히,兮, 全字,音假)
為(히,爲, 省劃,訓讀)
丶(히,爲, 省劃,訓讀)
爲(히,爲, 全字,訓讀)
ㅅ(히,? , ? , ?)
十(히,中, 省劃,訓讀)
中(히,中, 全字,訓讀)
甲(?, ?, ?, ?)
沮(?, ?, ?, ?)
菹(?, ?, ?, ?)